

대우조선해양, 서울대에 'R&D센터' 개소

(시흥캠퍼스)

선박·미래해양기술개발 본격 연구

대우조선해양이 5일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 내 연구센터에서 대우조선해양·서울대 시흥R&D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박 및 미래해양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

6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시흥 R&D센터는 급변하는 선박·해양플랜트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선박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자체 개발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스마트십 개발과 미래 해양공간 활용기술, 방산분야 기술력의 핵심인 스텔스 기술 및 잠수함 등 특수선 관련 기술 연구에도 매진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LNG운반선 기술력 가운데 천연 가스재액화장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LNG운반선 화물창 개발 등 천연가스 및 친환경



지난 5일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 이효원 기획부총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임병택 시흥시장(왼쪽에서 세 번째),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부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서울대 시흥R&D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에너지 분야를 중점 연구개발하게 된다.

향후 대우조선해양은 서울대학교와 미래 해양기술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교육과 인재 양성에 이 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며, 신사업을

창출하는 신기술 개발 및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임직원과 협력회사 대표들이 5일 서울 매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하반기 협력회사 최고경영자 아카데미'에서 두 손을 맞잡고 상생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협력사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개최

(주)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매이필드호텔에서 협력회사 대표, LG생활건강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하반기 협력회사 최고경영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력회사 최고경영자 아카데미는 LG생활건강과 협력회사가 한자리에 모여 동반성장 활동을 돌아보고 지원 제도와 계획을 공유하는 등 내실 있는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다. 1983

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5년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례'를 주제로 전문가 초빙 특강이 열렸다.

LG생활건강은 올 한해 혁신 경영으로 모범이 된 우수 협력회사를 포상하는 시상식도 열었다. 품질, 납기, 신기술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수행한 6개 협력회사의 사례를 공유하고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민서 기자 min812@

오늘의 운세 12월 7일 (음 11월 1일)



48년생 우는 아이는 달려야 한다. 60년생 순풍에 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72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차이는 성공으로만 측정된다. 8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이니 마음이 아프다.



49년생 절명의 위기에서 구해 주는 인연을 만난다. 61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73년생 확실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85년생 양보의 미덕으로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50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최선을 다해 두드려라. 62년생 지나친 간섭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74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별하라. 86년 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



51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63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5년생 충언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야 하는 법. 87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본다면 없어지지 않으니 세탁이 필요.



52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64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76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88년생 밤을 이겨낸 자만이 친란한 새벽을 볼 수 있다.



53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65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77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89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은 그날.



54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 66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한다. 78년생 세월이 기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90년생 임기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55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67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79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91년생 가령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한다.



56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칙각. 68년생 마음 가는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자. 80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92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5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9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되겠다. 8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93년 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우선 노력을 해라.



58년생 오늘은 양보와 헌생이 미덕이다. 70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82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온종일 마음이 불편. 94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59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곤혹스럽다. 71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83년생 소문난 친지에 먹을 것은 없다. 95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3	6				
8			7		6			
		1		5	7			
5	8		9	3				4
9			5	4				8
1		2	8	9				
1	2		9		6	8	7	8
		6		4		2	7	3
9	4			3				

1		9				2		
3		4				8		
4			2	7	1		3	
1						9		8
7		6		9	2		1	7
9	4							
7	1	2	3			5		
2				1	4		7	6
4						8		

스도쿠 정답								
6	8	9	4	1	7	3	5	2
7	3	5	8	6	2	4	1	9
4	1	2	3	5	9	7	6	8
1	6	7	3	5	4	1	2	8
9	7	3	5	4	1	2	8	6
2	5	8	6	9	3	1	7	4
3	9	6	1	8	4	5	2	7
8	4	1	7	2	5	6	9	3
5	2	7	9	3	6	8	4	1

문제 제공=보뉴스

뛰는 놈 아래 기는 놈

기자 수첩



채신화
<파이낸스&마켓부>

주거복지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쓴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얼마 전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 편향돼 있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전국 쪽방 등 비주택에 39만 가구가 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85만 가구에 전부 들어가도 남을 규모"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국토부, 서울시 측에선 주거 개선을 기대할 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를 지원한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되진 않는다"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서 최근 공급 확대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복지가 빠졌다. 정부가 서울 집값만 올려다볼게 아니라 이젠 시선을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

csh9101@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장수시대 최고의 행동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장수하는 것은 인류의 꿈이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충분한 먹거리가 있고 위생이 깨끗해진 지금은 이른바 백세시대이다. 대부분 장수하는 백세시대가 되니 이제는 말년 빙곤과 말년 고독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 백세시대 이전에는 장수 사주를 지닌 사람이 부러운 눈길을 받았다. 오행(五行)이 고르게 자리 잡고 신왕한 사주는 장수하는 사람의 사주이다. 신왕하지만 재성이 약하고 식상이 있는 사주도 장수를 누린다. 백세시대인 요즘은 장수 사주보다 더 부러움을 사는 사주가 있다. 바로 부부금슬이 좋고 함께 장수하는 사주이다. 힘없고 고독할 때 돈 만큼이나 중요한 건 함께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나이 들어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건 백세시대 최고의 축복일 것이다. 더구나 여자에 비해 생존능력이 떨어지는 남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깔끔하고 생활 속에서 재미를 찾을 줄 안다. 나이가 많아 질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백세시대에 남자들이 살 길은 아내에게 잘 보이는 것이다. 그래야 나이 들어도 추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아내의 사주로 보았을 때 여자의 일지에 희신이나 용신이 있